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5호 2014년 3월 3일(월)/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전화 043-830-8074 | FAX 043-830-8079 | www.jwu.ac.kr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
미래를 위한 원대한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원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에 근본을 둔 참된 지성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미래형 인재
젊음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는 자랑스러운 중원인

– 2014학년도 안병환 총장 입학 환영사 중 –



지면안내

2면 총장 신년사
2014년 갑오년 새해 인사
3면 Campus News
시무식과 함께 청마의 해 시작
주요부서 업무보고회 개최
4면 Campus News
2014학년도 등록금 1% 인하
공군과 손잡고 공군정비인력 양성
5면 Campus News
2014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한국운동생리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서울 노원구, 괴산군 보건소와 업무협약
6면 Campus News
중원대 교수 주요 연구과제 대거 선정
스포츠단 신입생 환영회 · 인성교육 개최
7면 Campus News
예비 신입생 영어캠프 개최
경대수 국회의원 초청 특강
8면 JWU AWARDS | Professors
ICCC2013 'The Best AWARD' 수상
한국법학회 최우수 논문 수상_김두년 교수
신인문학상 수상_신현주 교수
10면 JWU AWARDS | Student news
마야예어 '2013 올해의 선수상' 수상
괴산군 자원봉사 공로 표창_정명훈 학생
최초 공군 장교 임관_김홍기 학생
솔리드웍스(CSWA) 국제인증시험 합격
12면 Freshman
졸업생들의 대학생활 4년 노하우 성공비법
14면 Freshman
20살 때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일
16면 Culture
교수님 추천 도서
"이 책만은 꼭 읽어라"
18면 Culture
새내기 품격 높이는 옷찾아 입기
19면 Culture
A+ 대학생 가이드
20면 Culture
우리지역 맛집탐방
21면 Column
보람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_최소윤 학생
22면 Column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경영학과 이세우 교수
23면 2014년 입학축사
전기 입학식 환영사
24면 중원대 캠퍼스 MAP



친애하는 중원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던 2013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희망의 기운으로 새로이 시작한 새해에도 우리 중원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계사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중원대학교 학생, 직원, 교수 모두가 성 · 경 · 신의 설립이념을 토대로 교육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개교 4년차 신생대학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 중원대학교가 인성을 갖춘 지혜로운 인재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진정한 미래사회의 명품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갑오년 새 출발을 알리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뤄놓은 발전과 성과에만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모든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급변하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와 경쟁 속에서 대학 자체적인 강력한 개혁의지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도 대학구조조정, 대학특성화 및 학과특성화, 학생 서비스 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역량 강화 등 대학으로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제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쇄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2014년은 우리 중원대학교의 지난 과거 5년을 되돌아보며,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한 새로운 5년, 10년을 설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명품 대학에 걸맞은 새로운 대학 교육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중원대학교가 올 한 해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구축
둘째, 올바른 인성교육과 교양 · 전공교육의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시스템 정착
셋째, 중원대학교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대학의 브랜드화
넷째, 모든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심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

이상으로 올 한해 우리 중원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그에 맞는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급변하는 대학교육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중원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하나 된 마음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우리 중원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중원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총 장 [illegible]

2014년 시무식과 함께 청마의 해 시작!

안병환 총장, 신년사 통해 4대 발전방향 제시



▲청마의 해를 시작하는 2014년 중원대학교 시무식에서 안병환 총장과 주요보직자들이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1월 2일 대학 C&P홀에서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등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2014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은 △개회식 △국민의례 △모범 교직원 표창 △총장 신년사 △폐식 △신년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무식에서 안병환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3년은 학생지원율의 향상, 외국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확대, 학생취업 및 학교홍보 등으로 대학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며 평가하며 "2014년은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한 새로운 5년, 10년을 설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명품 대학에 걸맞은 새로운 대학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내자"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안총장은 2014년 중원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4대 발전방향으로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 구축 △올바른 인성교육과 교양·전공교육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중원대학교 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대학의 브랜드화 △모든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심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제시했다.

한편 입학처 이지현, 총무처 권종원 선생이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돼 표창과 부상을 수상했다.

중원대학교, 2014년도 주요부서 업무보고회 개최

중원대학교는 2월 10일 오후 CEO룸에서 주요 보직교수와 각 행정부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중원대학교 주요 부서 업무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한해 동안의 추진성과와 올해 각 행정부서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중원대학교 미래상과 각 부서별 주요 추진전략을 조명하고 각 부서별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획정보처를 시작으로 진행된 업무보고는 무려 5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업무보고를 받은 안병환 총장은 강평을 통해 "중원대학교 각 행정부서가 2013년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열정을 느낀 자리였으며 최선의 성과를 이룬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하다"며, "2014년은 모든 대학에게 위기이자 기회임을 각인하고 모든 중원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고 강조했다.



▲중원대학교는 2월 10일 오후 CEO룸에서 2014년도 주요부서 업무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원대, 2014학년도 등록금 1% 인하!

2012학년도 5%인하, 2013학년도 동결에 이어 인하 결정



중원대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학년도 등록금을 1%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 중원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수업료)은 인문사회계열은 3,119,000원, 공학과 예체능계열은 3,742,000원, 의료보건계열인 간호학과와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는 3,983,000원이다. (입학금은 76만원으로 작년과 동일)

이번 등록금 인하 결정은 교직원 5명, 학부모 1명, 학생대표 3명, 외부 전문가 1명(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중원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안병환 총장은 "중원대학교는 매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원대 관계자는 "2012학년도 등록금 5% 인하, 2012학년도 동결에 이어 이번 년도 등록금을 인하하게 되었다"며 "이번 인하 결정으로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학교는 2014학년도 신입생들의 등록금 완화를 위해 충북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들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관 입사생 전원에게 4년 동안 관리비 50%를 장학혜택으로 지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중원대, 공군과 손잡고 공군정비인력 양성!





▲안병환 총장은 2월 11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군 – 정비학과 개설 대학 간 우수정비인력 획득을 위한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식'에서 20개 체결대학을 대표해 협약서 서명을 하고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신재현 소장 등 대학 총장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 · 보강
자격증 취득 독려 예정

상생적 협력 관계구축
우수 정비요원 지속 배출

중원대학교가 공군과 손잡고 항공정비요원을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안병환 총장은 2월 11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군-정비학과 개설 대학 간 우수정비인력 획득을 위한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항공정비학과를 개설한 전국 20개 대학을 대표해 공군 군수참모부장 신재현 소장과 상호협력 합의서에 서명하고 세부 지원사항을 협의했다.

공군과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신설되는 중원대 항공정비학과는 공군으로부터 정비학과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도태 항공기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대여받고, 공군 정비창 등 정비현장 실습을 지원받음은 물론 숙련된 현역 항공정비사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받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장래에 공군 정비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교육시스템 보강에 힘쓰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독려할 예정이다.

공군에서는 매년 460여 명의 신임 정비사가 임관하지만 인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대학 출신 인력 중 정비학과를 이수하고 공군 정비사로 입대하는 요원은 약 40명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에 공군은 항공정비학과 학생들의 전공을 살리고 우수한 인력을 항공정비요원으로 획득하기 위해 각 대학과 상호협력하고 공군본부에서 교육지원과 인력획득 관련 상호협력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병환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신설되는 항공정비학과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갖춘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며 "중원대와 공군 간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정비요원 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공군 방위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중원대학교 항공학부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정비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과별 각 10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며 항공학부에 합격한 학생들은 항공운항학과의 수시 20.2:1 정시 11.6:1 항공정비학과는 수시 23.4:1 정시 9.2: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최고의 재원들이다.

중원대 21일, 2014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

전체 수석, 한민아(영미통상학과 4) 영예
학사 102명, 석사 8명 총 110명 졸업

첫 외국인 졸업생 배출,
카메룬 출신 레오까디 사회복지학사 취득

중원대학교는 2월 21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2014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안병환 총장을 비롯해 대진교육재단 임원진과 임각수 괴산군수, 김수룡 괴산경찰서장, 이차영 충북산업 바이오엑스포 사무총장 등과 학부모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학사 102명, 석사 8명 등 모두 110명이 학위를 받는다. 전체 수석 졸업생의 영광은 한민아(영미통상학과 4) 학생이 차지했으며 대진교육재단 이사장상을 수여받게 된다.

총장상은 각 단과대학별 수석 학생에게 수여되며 대상자는 고희향(사회복지학과 4), 김아정(한방소재산업학과 4), 박지현(산업디자인학과 4), 이승훈(스포츠건강의학과 4) 학생이다.

한편 중원대 첫 외국인 졸업생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2010년 중원대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한 띠차 메조프 레오까디(TICHA MEZOH LEOCADIE, 29세). 레오까디 학생은 4년 동안 총 141학점을 수강했으며 3.9(4.5만점)의 훌륭한 성적으로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받았다.



안병환 총장은 "모든 졸업생들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가는 중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미래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4년간 그 가능성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올바른 인성도 갖추었기에 당당히 세계로 나가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2014년 전기 학위수여식 포상자 명단

이사장상	인문사회과학대학	영미통상학과	한 민 아
총장상 (우수상)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고 희 향
	이공대학	한방소재산업학과	김 아 정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박 지 현
	의료보건대학	스포츠건강의학과	이 승 훈
공로상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이 승 현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류 하 정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홍 소 연
	인문사회과학대학	기업경영학과	남 지 현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구 미 나
	이공대학	의료공학과	이 동 민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신 나 리
	예체능대학	태권도학과	최 근 호
공로상 (대학원)	일반대학원	한방산업학과	남 호 섭
	일반대학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 동 찬
특별상	예체능대학	레저스포츠학과	김 현 수
	사회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안 진 한

중원대서 한국운동생리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 가져

중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학과장 김대훈)는 12월 7일 '노화와 근대사'를 주제로 2013년도 한국운동생리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를 동본관 PT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회에는 일본, 홍콩 및 국내에서 초청된 학자들의 강연과 발표로 구성되어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학회 제1부에서는 일본체육과학대학의 나카카토 코이치 교수와 홍콩폴리테크닉대학의 팔코 교수의 초청 주제 발표가 있었다. 2부와 32부에서 한국체육대학 박세정 교수와 한남대학교 조진경 교수, 계명대학교 정수련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학회에는 김두년 중원대 대학원장과 김은정 예체능대학장이 참석해 환영인사를 하며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을 맞이했다.

김은정 예체능학장은 "한국 운동생리학계를 이끌고 계시는 교수님과 연구자들의 중원대학교 방문을 진심을 환영한다"며 "이번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한국운동생리학회의 발전과 공동연구 추진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중원대학교는 12월 7일 '노화와 근대사'를 주제로 2013년도 한국운동생리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를 동본관 PT룸에서 개최했다.

중원대-서울 노원구-괴산군 보건소와 손잡다!

인적 교류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중원대학교는 1월 21일 오전 교무회의실에서 서울 노원구보건소(소장 박강원)와 의료보건 및 관련분야 발전과 선도를 위한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본교에서는 안병환 총장을 비롯한 이세우 홍보실장, 박안숙 의료보건대학장, 의료보건대학 전 학과장이 노원구보건소에서는 박강원 노원구보건소장, 홍종해 노원구보건소 생활건강과장, 김향숙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례연구 개발 및 보건의료 행정영역 상호간의 지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등 학술 교류를 통한 협력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및 후생시설 상호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보건대학은 지난 1월 15일, 괴산군보건소 회의실에서 괴산군보건소(소장 최창훈)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학생실습 및 건강증진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의료보건대학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실습 필요성이 요구되고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제고시키는데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건대학은 오는 3월부터 괴산군보건소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중요성 및 역할을 배우게 된다.

중원대 교수 2013 하반기 주요 연구과제 대거 선정


박재호 교수


윤영걸 교수


최용호 교수


남상선 교수


송동진 교수


김도완 교수

중원대학교는 2013년도 하반기 교육부를 비롯한 한국연구재단 등 각종 연구관련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대거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13일 중원대는 최근 발표한 사업 선정 결과 ▲박재호 교수(생약자원개발학과)의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친환경 수경재배 인삼 잎을 활용한 기능성 발효 숙취음료 개발) ▲윤영걸 교수(의생명과학과)의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테마 클러스터사업(마케팅 지원과 교육을 통한 연구능력의 강화) ▲최용호 교수(첨단소재공학과)의 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장맞춤형 기술개발(파스너 제품 코팅시 미도장 및 액고임 방지를 위한 Tilt/3 barrel 공전-자전 시스템 개발) ▲남상선 교수(자원순환환경공학과)의 한국연구재단(기초과학연구 인프라와 투자방향을 고려한 발전방향 제시) ▲송동진 교수(의료공학과)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위험도평가 알고리즘 검증) ▲김도완 교수(한방식품바이오학과)의 교육부 기본연구지원사업(전통발효 염색 재현과 응용제품 개발)이 선정돼 2억여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2014 중원대 스포츠단 신입생 환영회 · 인성교육 개최!



▲12월 19일 오전에 열린 중원대학교 스포츠단(단장 김대훈 교수) 신입생 환영회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2014학년도 신입생과 코칭스텝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원대학교 스포츠단(단장 김대훈 교수) 신입생 환영회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19일 중원대 E-hall을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정 예체능대학장을 비롯한 8개팀 감독과 코치, 학부모 등 백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은정 예체능대학장의 축사와 김대훈 스포츠단장의 인사말, 2014학년도 신입생 소개, 추진현황과 질의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예체능대학장 김은정 교수(레저스포츠학과)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 최고의 스포츠 엘리트 양성소인 중원대학교 스포츠단원이 된 신입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신입생들의 입학은 중원대의 축복이자 충북지역 스포츠계의 축복"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중원대학교 스포츠단은 지난 해 처음 창단한 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지역 스포츠 인재 양성의 메카로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한편 김대훈 스포츠단장(레저스포츠학과) 인사말에서 "스포츠단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이 개인의 인성과 팀원은 물론 팀 간의 소통과 친밀감 강화"를 당부하며 "내년 청마의 해는 스포츠단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로 대학 최고의 스포츠 엘리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달라"고 강조했다.

산학협력단-충북테크노파크 제 4회 창업심포지엄 개최



▲11월 27일,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한 제 4회 창업심포지엄에서 안병환 총장(사진 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테크노파크가 청년 창업 의지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한 제 4회 창업심포지엄을 27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창업심포지엄에는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임경수(사)한국앱융합산업협회)회장이 도전을 꿈꾸는 창의적인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현시대에 유망한 창업 소재와 창업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가지고, 이어 창업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청 김호관 사무관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독특한 벽지로 주목받고 있는 세가지 컴퍼니 김영애 대표가 자신의 창업동기, 실패, 도전 등 창업성공스토리를 강연해 예비창업자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올해 처음 마련한 창업아이템 공모전은 많은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컴퓨터시스템공학과 김학진 외 4명으로 구성된 팀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스마트 콜'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화중 필요한 메모, 통화내용다시듣기, 발신중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담은 아이템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안병환 중원대 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전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 중원대는 충북 테크노파크와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지원 사업이 청년 취업과 창업 경험을 통해 보다 실무적인 사회 인재가 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어의 두려움 떨쳐라! 예비 신입생 영어캠프 개최!







▲중원대학교 국제교류원 주관으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14학년도 예비신입생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과 원어민 교수, 재학생 도우미들이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영어연극을 하면서 영어를 못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연극을 하게 되어 뿌듯하다." 중원대 예비 신입생 오나경(한방식품바이오학과 입학예정) 학생이 '신입생 영어캠프'를 마치며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중원대가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학생활을 알차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영어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영어캠프에 참가한 예비 신입생들 모두 학교 기숙사에서 합숙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교육을 받았으며 단어숙어연습, 발음교정, 팀별 영어연극은 물론 여가문화를 위해 골프강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한 동기부여 및 미술 상담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영어캠프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 영어를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학생활에 앞서 알찬 정보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커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캠프에 참가한 김민규(경찰행정학과 입학예정)학생은 "원어민 교수님들과 함께 대화함으로써 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즐거워했다. 이번 캠프에는 재학생들이 도우미로 참가해 예비 신입생들을 직접 안내해 캠프 적응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4박 5일간 신입생들을 위해 영어캠프 도우미를 하며 재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장희준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고 배우기 힘든 영어회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며 발전해 나가는 캠프라고 말하며, 신입생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뿌듯한 마음을 보였다.

국제교류원장 송재두 교수는 "대학진학은 교육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시작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합격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캠프를 중원대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경대수 국회의원 초청 특강 가져!

중원대학교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19시 CEO룸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을 초청해 최고경영자과정 학생과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충북, 그리고 중부4군의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가졌다. 평생교육원장(김도완 교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특강에서 경 의원은 현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를 진단하면서 '대한민국의 비전',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와 동향'을 설명하고 '충북과 중부4군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경의원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충북에 조성될 혁신도시와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충북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충북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으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이 본교 최고경영자과정 학생과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충북, 그리고 중부4군의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고 있다.

김두년 교수 법학과

한국법률실무학회장 선출!





김두년 교수 (법학과)

중원대학교 법학과 김두년 교수가 지난 11월 29일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법률실무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2014년도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법률실무학회는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단위 학회로서 전국의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100 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매년 학술대회와 학회지를 발간하고 법률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두년 신임 학회장은 학계와 실무계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학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정효정 교수 사회복지학과

11대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선출!



정효정 교수 (사회복지학과)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효정 교수가 지난 12월 6일 중국 심천대학교 과기빌딩에서 열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3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11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는 1993년 11월17일에 '한국영유아보육학회'로 발족하여 현재 1,966명의 학회원으로 이 중 대학교수의 비율이 70%로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가정관리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정환경학과, 소비자아동학과 등 교수를 포함하여 영유아보육 전문가 및 보육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로 높아지는 현장의 영유아보육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의 참여 속에서 학계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정효정 신임 학회장은 "한국보육정책연구를 통해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의 요구가 정책에 적절히 반영·추진되도록 하고 산학협동을 통해 보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제5호 2014년 3월 3일 월요일

김두년 교수(법학과), 한국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법학과 김두년 교수가 지난 12월 13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두년 교수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최우수논문상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법학연구' 제49집에 게재되었다.

김 교수는 "교수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학술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다"며 "앞으로 더 좋은 논문을 쓰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1997년에 설립된 한국법학회는 법학교수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학회로써, 현재 35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연 4회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법학연구'를 발행하고 있으며, 현재 49집까지 발간되었다.

◀김두년 교수(법학과)가 지난 12월 13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곽병선 한국법학회장으로 부터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고 있다.

신현주 교수(연극영화학과), 신인문학상 수상 영예!

신현주 교수(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가 제233회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이 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신 교수는 이번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에 「오늘도 난…」 「시계」 「파란색 볼펜」 3편이 당선되었고, 월간 『문학세계』 12월호에 작품이 게재되었다.

심사위원으로부터 신교수의 시는 "형식을 파괴하고 인간 심성 본연의 캐릭터 발견하는 역량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내밀한 의식의 흐름을 원색의 이미지로 생성시키는 시적 내공이 상당한 경지에 오른 역량 있는 신인이라는 평도 들었다.

당선소감을 통해 신교수는 "지나온 내 삶의 모습들과 인생의 여정 속에, 나는 얼만큼 진실하게 삶을 살아냈으며, 얼만큼 진실한 언어로 시를 써보았던가. 그리고 얼만큼 나다웠을까."라고 회고하며 "멋 내지 않고 세련되지 않아도 좋다. 이젠 단순한 솔직함을 뛰어넘어, 단 한 순간만이라도 진실하게 시를 쓰고 싶다. 우리네 인생이, 그리고 모든 예술이 진실하면 기본은 통하는 것이기에…."라는 포부를 밝혔다.

신현주 교수는 현재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이자 연극연출가, 배우, 방송인, 작가,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다양한 예술 연구소 소장, 극단 아날로그 LA·한다 대표를 맡고 있다.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신현주 교수

PROFESSOR **JWU AWARDS**

박성억 · 안조근 교수

ICCC2013 'The Best AWARD' 수상!

한 대학, 동일 학과 교수가 동시 수상은 이례적... 학계 호평 이어져



▲안조근 교수 작품 : M.O.L(Modula OLED Lighting) / 작품설명 : 모듈화된 OLED광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환, 조합 및 응용이 가능한 조명기구 디자인



▲박성억 교수 작품 : Please let me breathe! (제발 숨쉬게 해주세요!) / 작품설명 : 지구온난화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



▲ 신정철 교수 작품

산업디자인학과
박성억, 안조근 교수가
2013년 12월 14일 ~ 12월 17일까지
일본 류큐대학교에서 개최된

ICCC2013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국제디지털디자인초대전에서
나란히 'The Best AWARD (TOP 10)'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성억 교수



안조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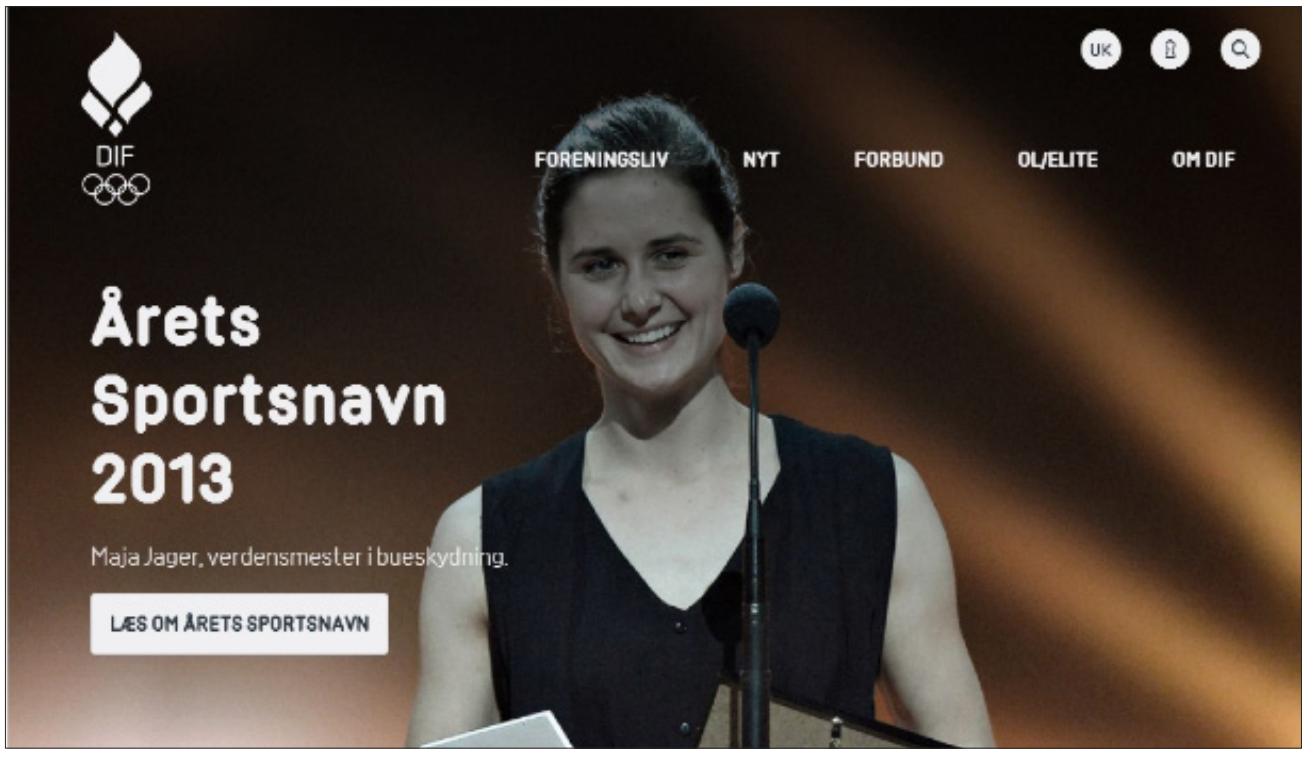
신정철 교수

ICCC2013은 사단법인 한국콘텐츠학회(KOCON)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주최하는 정기 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전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싱가폴, 보스니아 등 세계 8여 개국의 교수, 작가 등 300여명이 출품한 국제초대전시회로써 한 학교, 한 학과의 교수가 동시에 우수작품상을 수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외적으로 중원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산업학과의 교육역량을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춘계 국제초대전시회(한국콘텐츠학회 주최)에서도 산업디자인학과의 신정철 교수 또한 우수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2013년 한 해에 중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3명이 우수작품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통하는 등 중원대학교 교수진들의 우수한 역량을 만천하에 알리는 기염을 토했다.

마야 예어, 덴마크 '2013 올해의 선수상'수상!

2014년 중원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새내기로 입학 예정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전 챔피언 마야 예어(21,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입학 예정) 선수가 덴마크 올림픽위원회 · 스포츠연맹 (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Sports Confederation of Denmark)과 일랜포스트 신문사(Jyllands-Posten)가 선정한 2013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지난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전 챔피언 마야 예어(21,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입학 예정) 선수가 덴마크 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Sports Confederation of Denmark)과 일랜포스트 신문사(Jyllands-Posten)가 선정한 '2013 올해의 선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마야 예어는 세계적인 레이싱 드라이버 톰 크리스텐센과 사격선수 예스퍼 한센을 제치고 덴마크 양궁선수로는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으며 상금으로 50,000 덴마크 크로네(한화 약 1천만원)를 받았다.

마야 선수는 올해 터키에서 열린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 동메달을 차지해 덴마크 올해의 선수상 위원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다.

지난 해 3월 중원대학교로 유학을 온 마야는 1년 동안 오전에는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오후에는 양궁 훈련을 받고 있다. 마야 선수는 2월 한국어학당을 수료하고 중원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공학과 새내기로 입학할 예정이다.



융합의 힘! 'OT&ID'

작업치료도구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제 1회 작업치료도구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OT&ID'(이윤채, 강지은, 윤성희, 이주희)팀이 안병환 총장에서 수상 보고를 하고 격려를 받았다.

중원대학교 이윤채, 강지은, 윤성희(작업치료학과 3)과 이주희(산업디자인학과 1) 학생들로 구성된 'OT&ID'팀이 12월 13일,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작업치료도구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OT&ID'팀은 이번 공모전에 운전재활과 관절의 정상가동범위에 도움을 주는 작업치료도구를 주제로 'Stick maze and Replaceable handles'이란 명칭으로 만들었으며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Stick maze'는 미로판에 스틱을 꽂아 스틱에 따라 팔을 움직이고 판의 기울기 또한 조절 가능한 작업치료 도구이며 'Replaceable handles'는 지지대를 기반으로 핸들모양의 나무를 돌리거나 교체할 수 있는 작업치료도구다.

팀을 이끈 이윤채 학생은 "다른 학과 학생들이 함께 한 공모전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면서 "이번 작업치료도구의 가격이 저렴해 많은 취약계층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정명훈(사회복지학과) 학생 자원봉사 공로 표창 수상!



▲2013 괴산군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괴산군수 표창을 받은 정명훈(사진 맨 오른쪽) 학생이 입대전 괴산군 장연면에서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사진 위쪽) ▶정명훈 학생을 대신해 명영호(경찰행정학과) 학생이 괴산군수로 부터 표창을 대신 수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정명훈(사회복지학과, 11학번) 학생이 지난 11월 29일 괴산군 자원봉사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2013 괴산군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괴산군수 표창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명훈 학생은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괴산군 내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표창수상은 정명훈 학생이 11월 14일 의무경찰로 군입대를 해 봉사동아리 후배인 명영호(경찰행정학과) 학생이 대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괴산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조광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임각수 괴산군수, 홍관표 괴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사회봉사단체 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 20주년을 축하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올 한해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이자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의식 확산으로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사회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한 작업치료학과, 봉사동아리 등은 괴산군 150개 사회봉사단체와 함께 사랑의 점심나누기, 이동목욕봉사, 가족봉사단 운영, 이·미용 발마사지 전문자원봉사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홍기 졸업생 우리 대학 최초 공군 장교 임관!



▲공군 소위로 임관한 김홍기 (스포츠건강의학과, 09학번) 졸업생.

김홍기(스포츠건강의학과 졸업, 09학번) 졸업생이 12월 3일,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131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우리 대학 최초로 군장교로 임관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된 '제131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은 수료증서 수여, 시상,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참모총장 훈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최고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s)이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힘찬 비상을 기원하는 멋진 에어쇼도 펼쳐보았다.

김홍기 소위는 군수병과 특기를 부여받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공군의 각 부대에 배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원대, 솔리드웍스(CSWA) 국제인증시험 대거 합격!

첨단소재공학과 8명, 신재생에너학과 4명 합격

중원대학교는 최근 실시된 3D제품개발 설계전문가 국제인증시험인 CSWA(Certified SolidWorks Associate)에서 12명이 합격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전자·기계설계 국제인증시험인 CSWA(Certified SolidWorks Associate)는 미국의 전문가 자격시험이다.

정밀기계·로봇시스템·전기자동차·의료기기·반도체설비 등을 2D와 3D로 각각 설계하는 능력은 물론 3D시뮬레이션으로 시험운전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국제인증시험으로 기계설계 분야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과정이다.

이 과정을 취득한 전문가는 전국에서 300명 내외로 그 전문성과 희소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번 시험을 위해 중원대학교 첨단소재공학과와 신재생에너지학과 학생들은 메스트(MEST,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SolidWorks Team)라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매년 집중교육을 받았다.

한태희 교수(첨단소재공학과)는 "첫 걸음마이지만 올해 19명의 학생이 합격한 것은 그동안 스터디그룹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혼연일체가 된 덕분이다"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학교 이공대학은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학기제, 연구스터디, 지역산업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개편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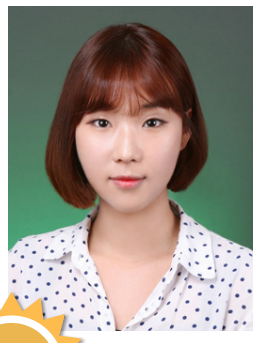


▲3D제품개발 설계전문가 국제인증시험인 CSWA (Certified SolidWorks Associate)에 합격한 12명의 학생이 솔리드웍스 전문강사인 원동현씨로부터 합격증으로 받고 있다.

졸업생들의 4년 노하우가 담긴 대학생활 성공 비법!

객원기자 명영호 loveho1231@naver.com





2014년 수석 졸업

영미통상학과 졸업생

한 민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미통상학과를 졸업하게 된 한민아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대학생활 팁은요! 바로 외국인 교수님들과 외국인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제 과가 언어 쪽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충분하더라고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지만 중원대학교에서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표현할 정도에요! 특히 언어 관련 학과 친구들이라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또 외국인 친구들과는 룸메이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 그리고 3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최고인 것 같고요. 설명해드릴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써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도서관에서 죽치고 책만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없는 책 빼곤 있을 책 다 있는 중원대 도서관입니다!

토익이나 토플, 오픽 같은 전문서적도 많으니까 애용해 주세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중원대 시설을 많이 이용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물관, 식물원, 온천탕, 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등등 여러 여가시설이 많으니까요 공부하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한 번씩 이용해보는 것도 대학생활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생

정 소 영

산업디자인학과 특성상 경쟁력이 곧 살아남는 법이다! 한 해에도 수많은 공모전이 쏟아져 나온다! 교수님 및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반드시 여러 공모전에 출품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자!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면접을 다니면서 나의 능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자격증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일 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하자!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 등 수많은 자격증이 존재하니까 나의 꿈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실천으로 옮기자! (컬러리스트는 3학년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다!)

대학생활에서 교재에 있는 지식만이 공부가 아니다! 교우관계를 다지는 것도 하나의 공부! 하지만 이런 교우관계도 공부하면서 쌓아가게 되면 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교수님도 좋고 일석삼조의 효과!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참고로 산디는 매일 다른 요일 다양한 스터디그룹이 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스터디그룹을 참여하도록 하자! 그리고 스터디그룹을 하면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선배님들과의 돈독한 관계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양한 견문을 쌓는 것도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다! 산업디자인학과에 들어온 이상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타 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 그 어떤 대학교도 좋다! 졸업전시회는 무조건 찾아서 다녀라! 졸업 전시회는 그 학생의 대학생활 4년간의 노하우가 모두 들어있는 작품이다. 이런 학생들의 전시회를 구경하는 것을 그 누가 시간을 허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업경영학과 졸업생

고 정 아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제2회 졸업생 기업경영학과 고정아입니다. 졸업하게 되니 이렇게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글도 쓰게 되네요!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 짧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원대학교에 처음 발 디디실 때부터 이미 대학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생각을 쭉 해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 한 달 지나면서부터 애초에 세웠던 계획은 사라져버리고 남은 건 빈 술병들과 밤새 놀았던 기억들만이 머리에 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졸업하지만 선배로서 작은 조언 몇 마디 적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무리 대학생활이라도 공부만 할 수는 없겠죠? 계획 없이 논다면 시간 낭비겠지만 계획을 잡고 논다면 여행이고 추억이 됩니다! 이렇듯 친구들과 아무 의미 없이 노는 것보다는 동아리를 들어서 타과 학생들과 교류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중원대학교에서는 사진공모전, UCC 공모전 등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추억과 상금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마지막으로는 학교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중원대학교 재학생으로 4년을 보냈지만 이용해보지 못했던 곳이 너무나도 많네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들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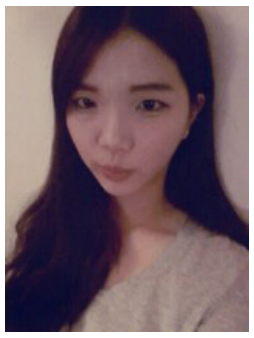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김 강 연

제가 후배님들한테 가장 말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졸업 전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거 하나뿐이에요. 물론 경찰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무도 단증은 필수로 준비해두는 것도 좋고 가산점도 꼭 미리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학과 활동 중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과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학점관리에도 신경써두고 체력관리는 필수!

마지막으로 생소한 법 과목 용어들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익혀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이 제가 만약 신입생 때로 돌아간다면 꼭 지키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모두들 힘내요!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정 혜 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평소에 신문이나 뉴스와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스크랩을 하여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두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취업하는 데에 유리할 것이다.

봉사활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평소에 한 기관을 골라서 꾸준히 봉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자기가 취업을 원하거나 관심 있는 기관에 장기간 자원봉사를 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할 경우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전 지식과 실천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실습에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습 평가를 통해 명확히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관리는 물론 이론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리포트를 논문 형식 위주로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성적이 좋으면 저절로 스펙은 따라오게 된다.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 한번 터뜨리는게 더 유리하다고 본다. 방학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회복지 관련 과제의 경우 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와 자료수집에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업에 매진하고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최대한 주말까지 과제를 끌고 가지 않도록 미리 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1학년 때부터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 다만 너무 한꺼번에 많은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워야 할 분야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4학년이 돼서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을 할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할 것이다.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한다.

신입생 여러분 레저스포츠학과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러분들은 갓 들어온 새내기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학점 관리입니다. 1학년 때 놀고 2학년 부터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생각 고이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1학년 때부터 내 할일 안하고 놀기만 한다면 정말 쭉 놀게 될 겁니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하셔야 합니다. 제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안 해서 취업할 때 엄청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시고 학점관리하세요.

자,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해야지 취업이 유리하고 가능한 과인데요.

그중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추천하고 싶어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후에 추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처음 자격증 취득하실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보단 본인이 잘하는 종목으로 취득하시고 그 후에 추가 취득으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꼭 하고 싶은 종목으로 추가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외에도 수상안전요원, 유아체육지도자, 필라테스 지도자 등등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은 많이 따면 딸수록 좋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추천하시고 또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학우들과 같이 놀지만 마시고 자격증 많이 취득하세요!

나중에 취업 걱정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왜 그 자격증을 따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일 없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세요.



레저스포츠학과 졸업생

이 단 비



기업경영학과 졸업생

남 지 현

안녕하세요. 기업경영학과 졸업생 남지현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의 대학생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소하지만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학 초년생으로서 해보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보세요!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것과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달려드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더라구요! 동아리, 봉사, 학생회, 대외활동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보는 시각을 차근차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꼭 필요한 영어자격증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따주세요! 정말로 4년 내내 편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연애를 해보세요. 시험기간에 애인과 같이 도서관 데이트를 하면 일석이조겠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특화된 비전을 찾는데 힘쓰세요! 그래야지만 흔들림 없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1학년부터 공부를 하라는 뻔한 얘기는 안 할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소리만 듣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놀아보세요! 술이든 뭐든 놀다 보면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 만들고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공부를 정말 해야겠다 싶을 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지 뭐! 또 연애도 해보고! 교보문고 가서 앉아서 책도 3시간 정도 읽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돈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저는 책에만 있는게 공부가 아니란 걸 지금에야 깨달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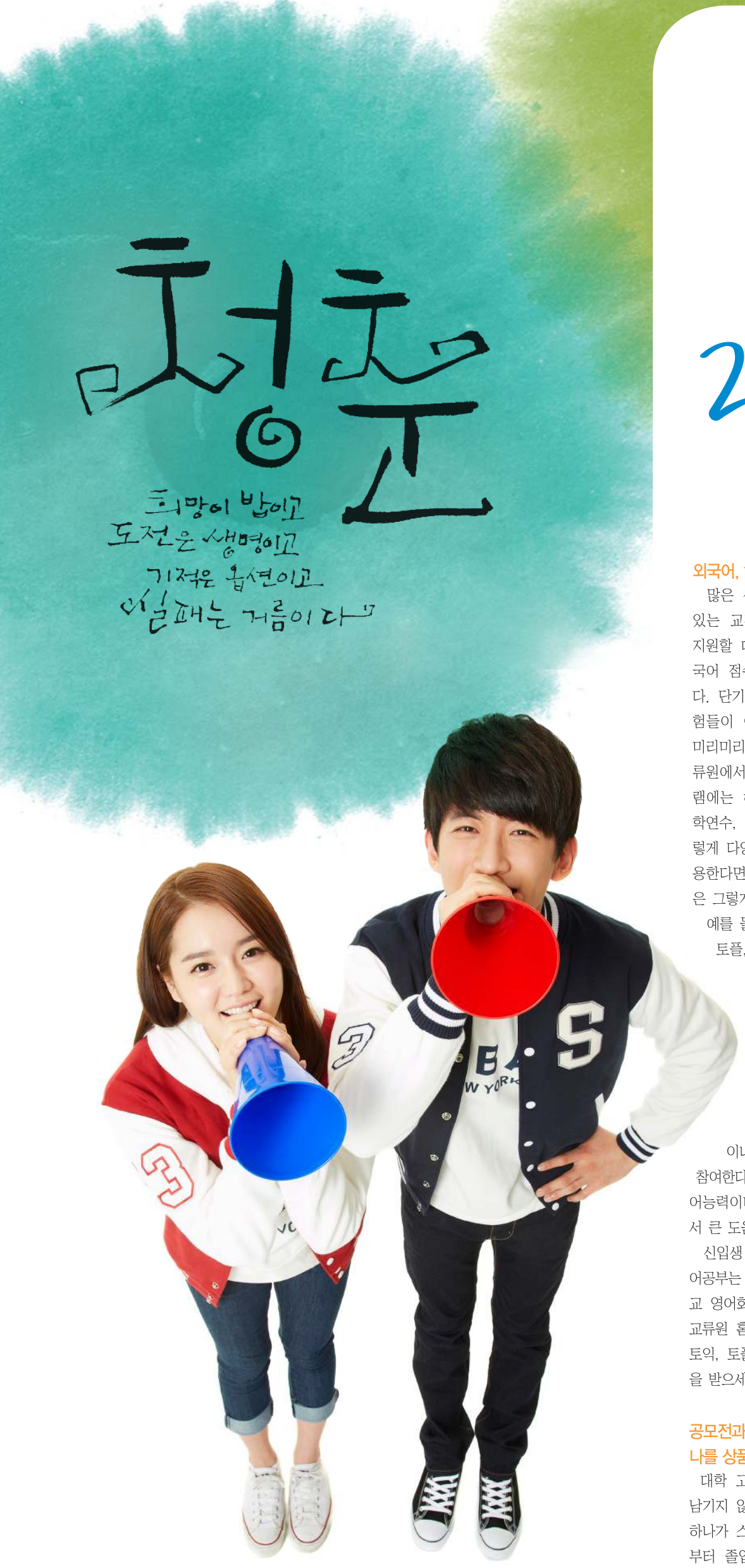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즈음에는 생각 없이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삶의 공부란 걸 깨닫는다면 후회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와서 제가 후회하는 점은 단 하나에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늦었다는 것. 흘러가버린 대학생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파이팅!



의료정보행정학과 졸업생

제5호 2014년 3월 3일 월요일





20살 때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일!

외국어, 1학년 때부터 준비하라!

많은 신입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할 때 토플, 토익, HSK등 외국어 점수와 자격증들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준비 할 수 있는 시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겠죠? 국제교류원에서 운영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에는 해외문화탐방, 해외단기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외국어실력을 높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학기 중에 토플, 토익이나 원하는 외국어의 입문학습을 한 뒤, 방학 때 해외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해외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 외국에 나가서 여러 경험을 해보고, 2학년 때는 심화학습과 어학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3, 4학년 때 본인의 언어능력이나 글로벌감각형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입생 때의 목표설정을 통한 언어공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학교 영어회화 수업에 충실하고, 국제교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토익, 토플강좌를 통해 학습에 도움을 받으세요~!

공모전과 자격증에 도전하기, 나를 상품화하라!

대학 고학년 학생이 되어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펙 관리입니다. 새내기 때부터 졸업 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저학년 때부터 공모전 수상경력과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보세요. 관련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모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모전 사이트'라는 문구 혹은 '대학생 공모전 사이트'란 문구를 검색하면 된답니다. 또는 학내 공문을 수시로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단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모전이 많으니 대학에서 알게 된 인맥과 함께 지원하는 것도 스펙도 쌓고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자격증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눠집니다. 자격증 정보는 공모전보다 인터넷에서 수월히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교수님께 자격증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세요. 자격증은 목표로 하는 직장에서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해요. 자격증은 많이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되는 몇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힘써야 한답니다. 동료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자신을 상품화할 수 있는 공모전과 자격증에 하루빨리 도전 해보도록 해요~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직접 경험해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든 이야기하고 기댈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정말 마음이 잘 맞고 평생을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 또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큰 자산이 되겠죠?

우리학교의 큰 특징! 기숙형 대학교, 모두 알고 계시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집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며 의지할 친구들은 룸메이트들과 학교 친구들, 선배님이 될거에요.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들의 잠버릇, 특징들을 경험하게 되

다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정말 잘 맞고 오래도록 함께 할 친구가 어떤 친구일지 찾을 수 있게 될거에요.

모두가 자신의 편이 아닐 때 단 한명이라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바로! 평생 친구를 찾아볼까요?

인생의 멘토를 만나기 위해 만남의 폭을 넓혀라!

인생의 멘토를 만나기 위해 만남의 폭을 넓혀라!

세간에 많은 자기계발 서적이 입을 모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멘토를 만나라' 입니다. 멘토란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경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배울 점이 많은 멘토에게 인생의 조언을 듣거나 충고를 듣도록 해보세요. 앞으로의 삶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로 20살! 지금이 삶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멘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유능한 멘토를 만나기 위해선,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멘토가 눈앞에 마냥 나타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유명인도 좋고 스승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책 또한 좋습니다. 대학생활동안 다양한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보고, 경험도 해보고 말을 듣고 글을 읽어 보세요.

대학은 멘토를 만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홀로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누군가 만나보세요. 삶의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멘토의 장점을 습득해서, 나도 어느새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보세요.

학생기자(언론장학생) 경험해보라.

대학교 1학년 때만큼 자기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학년은 없다는거 아시나요? 그 시간들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중원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외활동 중 학생기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중원대학교에는 분기별로 제작되는 학보가 있습니다. 그 학보는 바로 언론장학생, 즉 '학생기자' 들의 취재와 기획기사로 채워지고 있어요.

혹시 학생기자라는 소리를 듣고 "아... 나는 글도 잘 못쓰는데 기사는 써본 적도 없어. 그러니 당연히 선발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너무 큰 편견과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한다면 노력 할 필요가 없겠죠?^^

학생기자로 선발되는 것은 언론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활동량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답니다! 그리고 기사를 자꾸 적어봄에 따라 글쓰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쓴 기사들은 나중에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라면 학생기자 한번 도전해 볼만하지 않나요?

인생의 유한성 깨닫고, 유언장 작성하여 자신을 성장시키자!

유언장 쓰기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최종적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유언장입니다. 유한하지 않은 삶, 유언장을 20대에 쓰세요.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죽는다면' 을 사는 동안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20대는 유언장 쓰기를 통해 살아온 인생을 환기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재산목록에 대해 기록한 후 재산 처리방법을 기록합니다.

그 뒤 유언집행자나 후견인을 쓰도록 합니다.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소와 유언자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죽음에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병과 재난을 배제한다면 20대의 인생은 창창한 앞날이 기다립니다. 종이 한 장과 같은 죽음을 종이 한 장으로 바꾸어 봐요.

이러한 유언장 쓰기는 꾸준히 일정한 세월 간격으로 쓰면 웬만한 자기계발 강의를 듣는 것 못지않게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 이에요.

대학생활의 꽃! 동아리활동을 경험하라.

대학생활의 꽃!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우선 동아리에 가입하면 다양한 과와 학교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다양한 인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학술동아리를 소개 할게요. 학술동아리의 경우 강의 외에도 토론, 스터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레져&스포츠 동아리입니다. 학기 중에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활동적인 동아리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요!

세 번째로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주말이면 양로원이나 노인정 등 다양한 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고아원 등에 가서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시간도 채우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네 번째로 취업관련 동아리에요. 예를 들어 인턴쉽이나 공모전에 지원하거나 면접공부를 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요즘 취업난이다 보니 더욱 더 인기가 높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동아리가 많은데요,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시기바래요~!

가슴 저리도록 아픈 사랑해보라!

대학생활을 하면서 CC(Campus Couple)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인생의 큰 경험은 없답니다. 그 중 누군가를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하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해보는 경험은 해보지 않은 사람과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열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빠져서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이 지내도 보고 상처도 받아 본다면 당시에는 세상에서 제일 절망적이며 아프고 힘들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엔 그만큼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거에요.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요!

경험해보지 않고 나이가 점점 들면 영원히 느껴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아프지만 행복한 경험을 해보세요!

새내기, 내일로 여행을 꼭 가보라!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만약 내가 새내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여행' 이었습니다! 물론 2, 3학년 때 학기 중에 짬을 내어 2박 3일 정도로도 갈 수 있고,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등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가장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 시기! 훌훌 털고 어디든지 갔다 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새내기 때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해요~!

자 그럼 이제 여행 중에 대학생들만의 특권이자, 청춘여행이라 불리는 내일로 여행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볼께요~

내일로 여행은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7일간의 열차 자유이용권으로 전국 어디든 여행할 수 있어요. 만 25세까지의 대상으로 여름/겨울마다 매년 2회에 걸쳐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뭘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내일로 여행의 콘셉트와 목표를 정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여행의 핵심인 여행 코스를 정해야 해요.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동할 동선을 정해 효율적인 여행을 계획하는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준비물에는 티켓과 신분증, 세면도구, 옷, 교통카드 등을 준비해야하는데 자신이 가고 싶은 여행코스와 비슷한 사람의 리뷰를 참고하면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반드시 해야 할 50가지를 스스로 정하라.

앞에서 말한 신입생이 꼭 해봐야 할 것들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구요? 그건 본인이 스스로 만든 리스트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50가지 정도 정해놓고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거에요.

1년 동안 50가지의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지킨다면 1학년이 끝나고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알차고 뿌듯한 한 해를 보냈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실현 가능한 작고 사소한 일부터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까지 모두를 포함시켜 자신만의 'OO의 2014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을 만들어 보는 것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최소윤, 정회리, 노은지 기자



교수님이 새내기에게 추천하는 "이 책만은 꼭 읽어라"

대학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때 읽은 책들은 우리들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본지는 교수님들에게 신입생이 읽으면 좋은 책들을 추천 받았다. 좋은 책을 읽고 앞으로 여러분의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 〈편집부〉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재치있는 사람을 만들고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베이컨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르네 데카르트



경영학과 | 백평구 교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지음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중 대다수가 도시에서만 자랐고 농촌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뉴스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해왔을 것입니다. 비록 십여 년의 시차가 있지만 이 짧은 소설을 통해 농촌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편소설집이니 그 안에 수록된 다른 단편소설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 '욕탕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에 다음과 같은 제가 아끼는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사는 가운데 비범하게 유지된다." 우리 모두가 비범한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대학생활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김영하 작가의 소설들과 그의 TED 강연도 검색해서 감상해보기를 바랍니다.



임상병리학과 | 김진관 교수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오츠 슈이치 지음

이 책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임종을 앞둔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을 겪으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어떤 후회를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지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많은 학생들이 아직 호스피스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가 부자연스러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를 하며 심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도움을 주어 편안하게 인간적인 마지막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이 책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삶을 후회하지 않고 값지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기도 하다. 단순히 우리 대학의 의료보건대학 학생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도 삶을 반성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약화학과 | 최현경 교수

「세상을 향해 별을 쏘다」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20대의 시작을 중원대학교에서 맞이하게 된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해 별을 쏘다'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은 때론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7인의 이공계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풀어 쓴 수기를 엮은 책입니다. 이공대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이공계 분야에 뿌리깊게 박힌 편견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적성에 맞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No Action, No Change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피하고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목표를 세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다음 기회가 올 것이고, 다음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한다면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이 책에는 꿈과 거리가 멀었던 전공을 택한 이야기,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녹록치 않았던 현실에 부딪힌 이야기 등등 여학생들이 미래에 겪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에 대해 서술되어있고, 그에 따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가진 학생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갈등을 해소하며,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며 중원대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저스포츠학과 | 김은정 교수

아래 5가지 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와 대학생들에게 가치관정립과 꿈, 목표의식, 인격수양을 쌓을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에게는 "인생에 한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으로 잠자기 전 읽고 또 읽어도 되는 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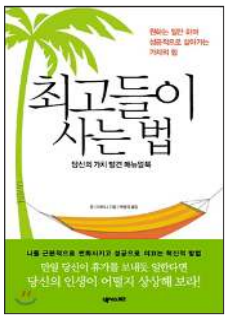
「버림의 행복론」
야마시타 히데코 지음

–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책으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추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 지음

– 꿈을 잊고 사는 분들께 추천하며 대학생들에게 가장 추천 해주고 싶은 책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



「최고들이 사는 법」
존 디마티니 지음

–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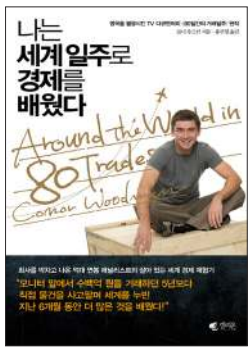


「강신주의 다상담」
강신주 지음
– 여러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는 책으로 작가의 내공이 보이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일생에 한번은 고수를 만나라」
한근태 지음

– "지식의 양이 많건 적건 비움은 필수조건이다. 끊임없이 비울 수 있어야 큰 앎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책은 젊은이들에게 필수로 추천하는 책.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두었다. 강력 추천 합니다.



경찰행정학과 | 유영재 교수

「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코너 우드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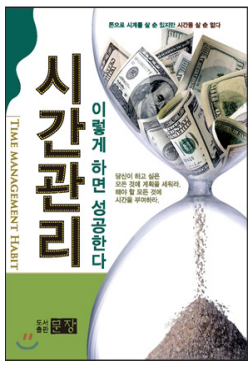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대학에 진학하였나요? 아마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였을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더 성숙한 경제관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여행기 속에서 경제적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유능한 금융맨이었던 코너 우드먼이 6개월 동안 15개국을 누비며 물건을 사고팔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책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개념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너 우드먼은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떠난 여행에서 보다 값진 교훈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용기 있는 도전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 줄 자산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한번 쯤 깊이 생각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 대학생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랍니다.

중원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이 새내기 여러분들의 앞날에 커다란 발판이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해 봅니다.



골프과학과 | 박금숙 교수

「시간 관리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퀸튼 신들러 지음

이 책은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현대인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에 맞추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해줄 것이다.

시간 활용의 근본은 일의 처리 방법, 계획서 작성, 조직 구성, 컨트롤 방법, 부하의 훈련, 일을 맡기는 방법, 의사결정 방법에 있다. 이런 것을 잘 하면 결국 시간의 절약, 즉 크게는 시간 활용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일의 처리, 진행방법을 연구개선하며 학교생활을 한다면 멋진 미래가 기다릴 것이다.



간호학과 | 박안숙 교수

「감정은 습관이다」
박용철 지음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행복을 위한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담겨질까? 부와 명예가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임상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한가?를 명제로 하여 평생 무너지지 않을 행복한 감정습관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부정의 나를 긍정의 나로 바꾸는 힘은 오로지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자각하게 만드는 이 책은 단숨에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써내려간 간결함이 돋보인다.

그러나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읽어보기를 권한다.

Lady [여성편]

새내기 품격 높이는 옷 찾아 입기









기대를 가득 안고 대학에 입학하는 계절인 봄이 왔다. 파릇파릇 피어나 화사함을 퍼트리는 싱그러운 꽃처럼 대학에서 새내기는 꽃 같은 존재다.

3월 입학 시즌이 다가올수록 대학을 지원했을 때의 설레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걱정들로 메꾸고 있지는 않은가. 새내기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옷이다.

대학 입학 첫인상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트렌치코트와 원피스를 입어보자. 가방은 상반된 이미지와 높은 효율성을 가진 가죽 백팩이 좋다.

봄 트렌치코트를 고르는 방법은 본인의 체형을 잘 아는 것이 좋다. 색상 또한 자신과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여 벨트나 끈으로 고정한다. 원피스의 색상은 모노톤의 다운된 컬러보다는 적당한 컬러감으로 룩에 활력을 주는 것이 좋다.

아직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어 손쉽고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원한다면 밝은 컬러의 퍼로 드리밍 된 야상점퍼와 맨투맨티, 스키니진을 입어보자. 활력 있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올 겨울에 인기였던 무스탕과 블랙 원피스를 선택해 입어보자. 블랙은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한층 업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다이어트가 필요 없이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이전과 다른 스타일링에 도전하고 싶다면 레드, 블루 등 강렬한 컬러나 퍼 등의 소재가 사용된 코트와 짙은 색상의 모노톤으로 포인트를 주어 지나침 없이 감각적인 느낌을 주도록 하자.

마지막 엠티를 가기위한 복장으로는 스포티한 맨투맨 티셔츠와 바지, 스타디움 점퍼를 입는 것이 좋다.

노은지 기자
shdms1x@naver.com



A+ 대학생 가이드

레포트 잘 쓰는 법!

대학생이라면 기본중의 기본인 레포트 쓰기! 같은 레포트를 쓰더라도 매번 A+를 받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 열심히 썼는데 기대치만큼의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레포트 잘 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평소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듣고,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라! 시험문제를 내는 사람도, 레포트를 내는 사람도, 누구다? 바로 교수님! 평소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를 꼼꼼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또한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학생만이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교수님이 자주 요구하는 스타일을 의식적으로 파악한 뒤 레포트에 녹여내야 합니다.

두 번째, 레포트를 쓰기 전, 브레인 스토밍!(개요 짜기) 레포트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조건 생각도 안 해보고 글을 먼저 써내려간다면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힘들 것입니다. 뭐든지, 글을 쓰기 전에는 먼저 생각해보는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글을 구성할지, 서론-본론-결론 각각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 갈지, 미리 생각하고 가지를 잡아둔다면, 글을 쓰는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인보다는, 당신의 의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레포트 쓰는 방법은 바로 '짜집기'입니다. 나름 머리 굴려서 이 글 저 글의 단락들을 모아서 짜집기를 해보는데 이것은 전체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사람과 명청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한 두사람도 아니고 수십명, 수백 명의 학생들의 글을 보는데 교수님이 설마 모르실까요? 지식인 보다는 당신의 의견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비록 지식인의 글보다 허술할 지 몰라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강남여자얼굴같이 판에 찍어낸 듯 똑같은 레포트 보다는 조금 못생겨도 독특한 당신의 글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문헌, 자료, 서적을 이용하라! 지식인 말고, 진짜 지식을 이용해야합니다. 발로 뛴만큼, 많이 찾아 본만큼 얻어 가는게 진리! 학교 도서관에 찾아가 레포트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찾아봅시다. 모든 책을 꼼꼼히 정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글 쓰는 데에 필요한 소스들만 추려내서 레포트에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그대로 인용 하였을 때에는 '출처 표시'는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깔끔하게 각주까지 달아준다면 더 좋겠죠?

다섯 번째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으니 가독성을 높이자!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잘 쓴 글이라도, 구겨진 종이에, 지저분한 폰트로 쓴 글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읽기 싫을 것입니다. 최대한 깔끔하고, 보기 좋게 작성해야합니다.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보기 좋은 글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읽게 될 것입니다.

정회리기자 hr411@naver.com

대학생, 수강신청 Tip!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시간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표를 만드는 과정을 수강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한 학기를 보내기위한 첫 단계인 수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1. 전공이냐 교양이냐!

좋은 시간표를 짜려면 이번학기에 들어야할 학점과 전공과 교양 둘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 확실히 결정 해야 해요.

2. 하루에 몇 과목을 들을 것인가!

이는 곧 학점으로 연결되니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겠죠?

3. 수업계획서를 꼭 읽어보자!

수업계획서의 평가방법, 강의계획 및 과제, 수업안내 등을 잘 읽어보지 않고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 결국 수업에 잘 참여 하지 않고 재수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4. 경험보다 확실한 정보는 없다!

수업계획서에도 안 나와 있고, 대학 새내기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살아있는' 정보를 얻고 싶다면 선배들에게 물어보거나 각 학과별로 개설되어 있는 카페나 클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5. 플랜B가 아닌 Z까지 준비하자!

수업계획서 및 선배들의 생생한 체험담까지 취합해 완벽한 시간표를 짜 놓았다고 해도 만약을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해요!! 계획이 어그러져 전혀 관심 없는 과목을 들을 수도 있으니 미리 대안을 생각해 두세요.

정회리기자 hr411@naver.com



대학생활 용어사전!

1. **학부** : 세부적으로 전공학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한 개의 학과가 학부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는 두 개 이상의 전공학과로 나뉘어집니다.
2. **과대** : 학과 대표의 줄임말.
3. **학회장** : 학생회장의 줄임말.
4. **학과장** : 학과를 이끌어 가시는 주 교수님을 뜻합니다.
5. **개파, 종파** : 개강파티와 종강파티의 줄임말. 과의 단합을 위해 한학기가 시작할 때 끝날 때를 축하하는 파티입니다.
6. **학고** : 학사경고의 줄임말. 학교마다 다르지만 평균 1.75이하이거나 F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7. **풀강** : 하루FULL로 수업이 꽉 찬 것을 뜻합니다.
8. **재수강** : 자신이 이미 수강하여 들은 과목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C+이하로는 다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제도입니다.
9. **학식** : '학생회관식당'의 줄임말로, '학교급식'의 줄임말로 사용됩니다.
10. **총학** : 총학생회를 뜻하는 말로, 한 학교 안의 학생 단체들을 통틀어서 지휘하는 학생들의 자체 단체를 뜻합니다.





우리 지역 맛집 탐방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픈 학생신분, 바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주기 위해 다년간 수 없이 많은 해장과 야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괴산 읍내 음식점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음식점들은 모두 제가 직접 맛봤던 곳 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맛과 취향으로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음식점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 두천 매운탕

대표 메뉴

메기 매운탕(소 30,000원), 닭볶음탕(35,000원)

추천 이유

개강 후 동기들 또는 선후배들과의 과도한 음주를 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속을 풀수 있는 메기 매운탕을 추천한다. 단 한 숟갈만으로도 속이 따뜻해지면서 얼큼함과 개운함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3명이 간다면 '소자'를 시켜도 양이 엄청 많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무엇보다 강가 옆에 위치하고 있어 식사 후 오리배도 탈수 있다는 점. (연인끼리 짝을 지어서 가면 데이트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만약 여러 팀이 간다면 한 팀은 닭볶음탕을 꼭 시키시길 밥이랑 비벼먹으면 그 맛이 예술~단점은 얼큰한 국물로 인해 술이 또 땡긴다는 점.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음식점이라 이글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들려봐라.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p.s 단체로 예약해서 중원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특별히 잘해주심!

전화번호 : 043-832-3210
찾아가는 길 : 괴강교를 건너서 삼거리 만남의 광장 옆면에 위치해 있다.



2. 괴산 손짜장

대표 메뉴

짜장면(5,000원), 짬뽕(6,000원)
쟁반짜장(12,000원)

추천 이유

괴산읍내에 있는 중화요리 집은 거의 다 가본 필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입맛에 맞는 집으로 이곳을 추천한다. 맛과 양은 기본이거니와 주방이 트여있어 모든 조리과정을 볼 수 있고 면 만드는 과정도 상당히 재미있어 볼거리 중에 하나이다. 모든 중화요리 집이 짜장면과 짬뽕이 대표 메뉴겠지만 이곳 짬뽕은 홍합의 양이 엄청나다. 면을 먹으러 온 건지 홍합을 먹으로 온 건지 조차도 헷갈릴 정도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필자는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기 때문에 이곳 짬뽕의 진정한 맛을 느껴보지 못했다. 매운 맛과 홍합의 양을 경험하고 싶다면 당연 추천하는 집이다. 만약 3~4명이서 올 경우에는 쟁반짜장을 추천한다. 푸짐한 해물과 엄청난 양의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전화번호 : 043-832-6868, 043-834-1188
찾아가는 길 : 다이소 골목에서 15m 정도 직진.



3. 텔보 왕돈까스

대표 메뉴

돈까스(7,000원), 제육덮밥(5,500원),
김치덮밥(5,500원)

추천 이유

중원대학교 재학생이라면 거의 알겠지만 양도 엄청나고 맛도 기가 막히는 집이다. 메인메뉴는 역시 돈까스이며 간판에 적힌 대로 양이 대단하다. 각종 덮밥 역시 성인 남자가 먹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으며 사장님도 친절해서 양을 더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주실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제육덮밥을 가장 좋아하며 즐겨먹는 메뉴중 하나이다. 만약 2~3명이서 왔을 경우에는 각자 먹고 싶은 덮밥종류를 하나씩 시키고 덤으로 돈까스를 시켜 먹으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될 것이다.

전화번호 : 043-833-7207
찾아가는 길 : 괴산시장을 나오면 갯마을이 보이며 갯마을 오른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위치해 있다.



4. 의정부 부대찌개

대표 메뉴

부대찌개(1인분 7,000원)

추천 이유

칼칼한 찌개종류를 먹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의정부 부대찌개. 양이 많아 다 먹고 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푸짐하다. 부대찌개는 3~4명이서 오기에 적당하며 건더기를 다 먹고 배가 고프다면 라면사리도 추가해서 먹으면 금상첨화이다. 공기밥도 나오기 때문에 밥도 말아먹기에 안성맞춤. 신입생이라면 동기들과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

전화번호 : 043-833-0445
찾아가는 길 : 괴산 읍사무소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로 보인다.



5. 괴산식당

대표 메뉴

보리밥(4,000원)

추천 이유

구수한 보리밥을 먹고 싶다면 이런 곳이 어떨까. 보리밥을 시키면 각종 맛있는 밑반찬과 된장찌개를 4,000원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격도 저렴해 부담이 없다. 식사시간대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 자리가 없을 때도 있다. 이점 참고해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사진촬영을 하면서 이 날 하필 휴무인 관계로 메뉴판을 찍지 못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전화번호 : 043-832-2885
찾아가는 길 : 털보네 왕 돈까스와 반대편 골목에 위치해 있다.



6. 왕천 파닭

대표 메뉴

파닭(17,000원)

추천 이유

야식의 꽃 치킨. 괴산 치킨집 중에서도 마니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단연 최고라는 점이다. 타 치킨집과는 달리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양념, 콜라 등 서비스도 좋다는 점이 이번 기사에 실린 이유다. 이곳에서 치킨을 먹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켜먹는 것 보다 직접 가서 먹으면 양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친구와 함께 시켜먹으면 둘이서 한 마리가 충분하지만 가서 먹으면 남기고 돌아오게 된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전화번호 : 043-834-7890
찾아가는 길 : 디마트가 위치해 있는 길거리로 걸어 올라가다보면 오른편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드리기 위해 괴산 읍내 여섯 군데의 음식점들에 대해서 소개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제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객원기자 명영호
loveho1231@naver.com

보람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



사회복지학과
최 소 윤

고등학생 때 항상 “대학교에만 가면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신입생들에게 묻고 싶다. 입학 후 3월은 대학교 수업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다. 동기들과 선배,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친목을 다지며 정신없이 지나간다. 기숙사형 대학의 특성상 공부하라고 매일 말씀 하시던 부모님은 안 계시고, 술을 조절해서 마시지 않아도 되며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앞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울 것인지 생각해 본적 있는가?

20살. 미성년자를 벗어났고 부모님 품을 떠나 타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강의 시간표도 자신이 짤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다.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 자유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자유가 주어졌으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대학생이 된 지금이 자유의지를 보람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야한다. 듣고 싶은 과목만 들을 수 있고, 빡빡한 시간표가 싫다고, 학점을 적게 신청하면 졸업 학점이 모자라 졸업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수업을 빼먹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다.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적은 그 성실함을 점수로 나타내는 결과다. 매일 술을 마시고 밤에 안자고 불규칙한 생활이 지속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자유로운 선택들은 인생에 반영되어 좋지 않은 결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꼭 공부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할 일도 많고 해 볼 것도 너무 많다. “시간이 없다.”, “우리는 괴산에 있으니까.” 등등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핑계고 회피일 뿐이다. 시간은 만들면 되고, 지리적으로도 스스로 조금만 더 움직이면 뭐든 할 수 있다. 스스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신입생 때 스노우보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전국 대학 동아리 연합에 가입해 활동한 경험이 있다. 매 달 연합에 소속된 대학에서 회의가 열렸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참석했다.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만날 수 없는 고학번의 선배들, 우리학교에 없는 전공자들 등 셀 수 없이 많은 배울 점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기숙사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잠만 잘 시간이 없다. 친구가 한다고 따라 할 나이는 지났고, 자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할 일을 모두 알려주던, 미성년자의 울타리, 청소년 시절은 지나갔다. 자신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경험해 보고 싶었던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당당한 대학생이다. 그 누구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모든 선택은 자유이고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생각하고, 움직여서 실행하자. 작은 행동의 시작은 자신의 목표, 꿈으로 한발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2014년 중원대학교
제 3대 총학생회 ‘행동하는 민중지성’

Why not
2014. 중원대학교 제 3대 총학생회

신입생 여러분!
젊음과 패기 뜨거운 호응 또는 질책일지라도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총학생회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합니다.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좌측부터 교육복지국장 이요한, 재정사무국장 강소연, 정책기획국장 안효원, 문화체육국장 김승미, 홍보국장 전서안, 부회장 이현준, 회장 신광철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신입생여러분 2014학년도 중원대학교 제3대 총학생회 Why not입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상아탑에 발을 디딘 신입생 여러분. 부푼 꿈을 한 아름 가슴에 안은 채 도착한 중원대학교에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4 중원대학교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두 손 벌려 환영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중원대학교 총학생회 Why not은 “행동하는 민중지성”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학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고 행동하는 민중의 지성인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Why not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및 공약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패기, 열정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올 한해 총학생회와 학우들 간의 ‘소통’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소통’의 중요성과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도 하나하나 새겨듣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에 어려움과 미숙함이 없지 않습니다. 비록 더디고 부족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늪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소통’을 외치는 진정한 총학생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대
2014 새내기들에게 한마디...





경영학과 교수
홍보실장
이 세 우

우선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던 정든 부모님 곁을 떠나 대학이라는 새로운 둥지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시작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어엿한 성인으로서, 신입생이지만 성숙한 대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심정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을 회상해 볼 때 무언가 조금은 아쉬움과 후회스러웠던 점이 늘 가슴속에 남아 있었기에 올 해 새내기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을 짤막하게 전해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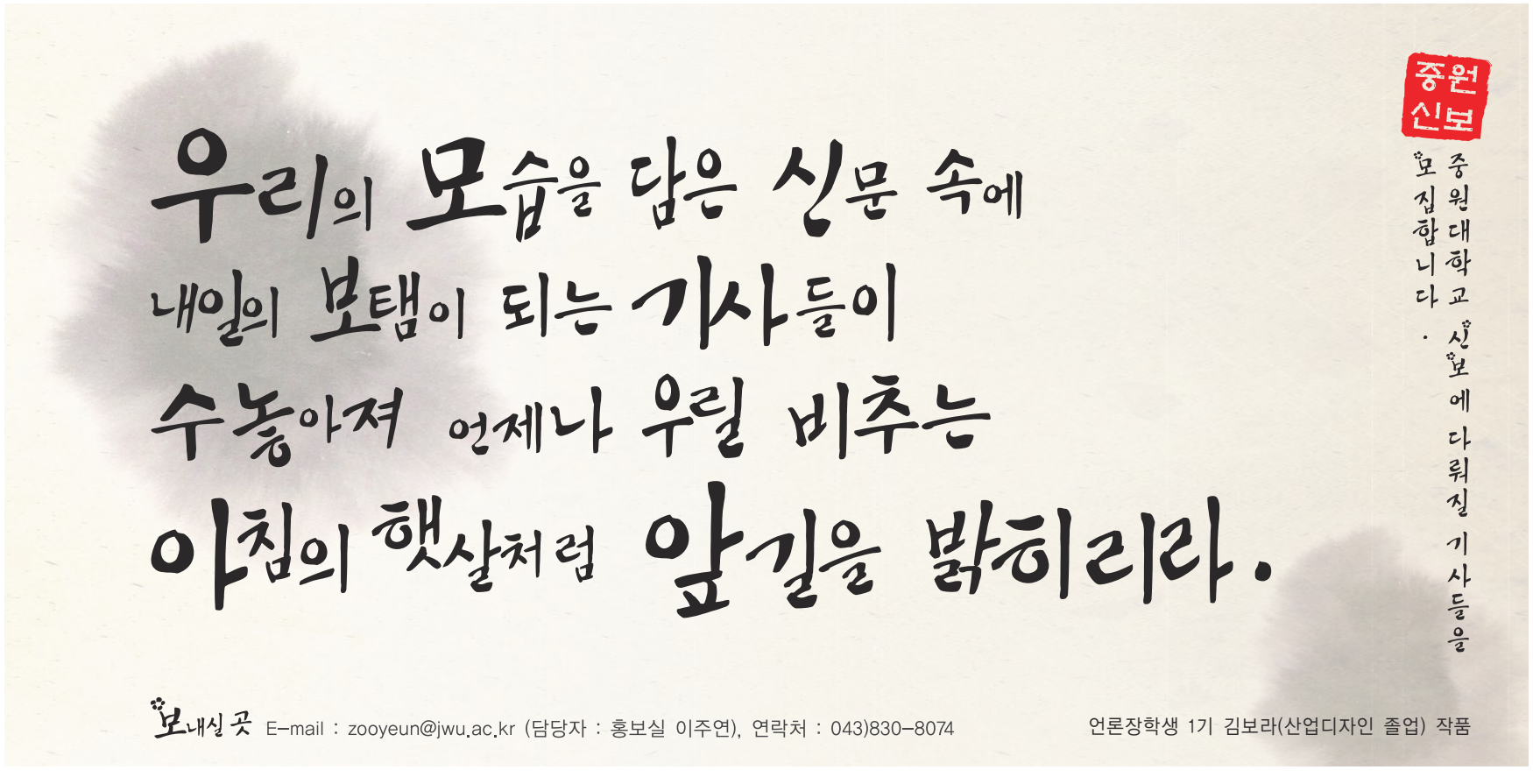
대학교라고 해서 너무 부푼 기대감으로 환상에 젖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지나치게 환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현실적인 안목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고 차근차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컨대, 내가 대학생이 된다면 꼭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다, 혹은 나 스스로가 뜨거운 열정으로 나만의 대학생활을 누려보고 싶다, 장학금을 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 처음 이성 친구를 꼭 사귀고 싶다 등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졸업할 때 어떤 모습일까를 한 번 그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처럼 나의 미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한 면을 대학생활을 통해 조금씩 채워나가는 성숙한 대학생으로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뒤돌아보면 그 때는 이랬었지 하며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르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생시위가 워낙 심하던 시절이라 대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대학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내기답게 나만의 계획을 잘 세워서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열심히 활동적으로 대학생활을 마음껏 누려라. 마음속 부푼 기대감이나 뜨거운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패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라. 그리고 때로는 시련의 아픔도 느껴보고, 뜨거운 가슴으로 동기, 선배와 함께 대학생이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없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모두 새로운 대학 생활을 보다 값지게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대진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중원으로!

입학식 환영사

존경하는 내 · 외 귀빈과 학부모님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

싱그러운 봄기운이 샘솟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중원대학교 2014학년도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중원대학교 신입생들을 맞이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로 키워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중원대학교를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내신 모든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께도 중원대학교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중원대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과 종단 후원인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중원대학교 안에서 각자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자기계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총장은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막 대학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여러분은 성실, 경건, 신념이라는 우리 중원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철학아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에 근본을 둔 참된 지성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성이 바로 선 전문인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참된 인재상이 될 것 입니다.

둘째, 철저한 자기준비와 노력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미래형 인재로 거듭나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과거와 달리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중원대학교에서 체계화된 전공지식 습득을 통한 전문성 향상은 물론 훌륭한 인성을 겸비한 도덕심, 남을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과 실천력, 글로벌 인재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들의 젊음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는 자랑스러운 중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는 젊음이라는 가장 큰 재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약해야 할 무대는 국내는 물론 넓게 펼쳐진 세계일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은 글로벌 사회에 걸맞게 준비된 중원대학교 캠퍼스에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는 젊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대학생활과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새로운 중원대학교의 미래가 시작되는 오늘, 총장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재능과 역량을 계발하고 희망찬 미래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중원대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 투철한 각오로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 준다면, 10년 뒤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 우리 중원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는 모든 신입생 여러분께도 걱정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레는 출발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줄 훌륭한 리더로서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3월 3일

총 장 

24시간 빛나는 꿈의 도시!!

대학의 품격이 높아지면 인재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중원대학교의 캠퍼스는 기존 대학과는 다른 스케일이 있습니다.
학생의 오늘과 미래를 연결해 주는 특화된 레지던스 교육시설과
대학과 세계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교수, 세계가 24시간 소통하는 곳 – 이곳은 또 하나의 작은 지구촌입니다.

